

‘쓰레기 대란’ 해결 여부 오늘 판가름?

봉개동주민대책위 요구안 놓고 원 지사 면담 면담 결과 따라 쓰레기 반입 허용·금지 결정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쓰레기 반입이 한시적으로 허용됐으나 원희룡 제주도지사와의 면담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 지사가 봉개동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매립장내 쓰레기 반입이 전면 허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민들이 만족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쓰레기 반입 금지 사태는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봉개동쓰레기매립장주민대책위원회는 제주시의 반입 허용 요청 등에 따라 지난 19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회의를 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와의 면담을

전제 조건으로 쓰레기 반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결정했다. 또 이들은 20일 원 지사와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날 자정부터 다시 쓰레기 반입 금지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대책위는 20일 오전 원희룡 제주도지사와의 면담을 추진했으나 원 지사의 도외 출장으로 면담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와 관련 김재호 위원장은 “출장 중인 원 지사가 21일 오후 돌아온다고 해서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면담 전까지는 일단 쓰레기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며 “원 지사와의 면담결

과에 따라 쓰레기 반입을 다시 중단시킬 것인지, 아니면 반입을 전면 허용할 것인지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봉개동 매립장에서 1992년 8월부터 현재까지 27년 동안 쓰레기를 처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3번의 연장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새달동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준공 지연으로 다시 연장 운영을 해야 하는 현실에 처하게 됐다”며 “매번 쓰레기 대란만은 막아달라는 행정의 부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까지 침해받으면서 참여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92년 8월부터 매립을 시작한 봉개동쓰레기 매립장은 2011년까지 사용키로 돼 있었으나 행정과 주

민대책위원의 합의를 통해 운영 기간을 매립장 포화가 예상되는 2016년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에도 봉개매립장을 대체할 구좌읍 동북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완공되지 않자 2018년 5월 31일까지 사용하기로 한번 더 합의했다. 이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준공 지연 등으로 인해 2018년 다시 협약해 매립장을 2019년 10월 31일까지 연장 사용하고 재활용품·음식물처리시설은 2021년 10월 31일까지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행정절차 지연으로 새달동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준공예정일이 2023년 상반기로 1년여 늦춰지게 되면서 봉개동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건설노동자 이틀째 크레인 고공농성

20일 도청앞에선 차량시위 농성파른 소음 민원도 폭증 경찰 “업무방해 혐의 검토”

제주 건설인 노동자들이 20일 제주시 연동에서 현장 안전사고 관련 사고수습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이틀째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국건설인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9일 새벽 4시쯤부터 제주시 연동신광사거리에서 건설노동자 A(50)씨가 탑승한 승용차 1대를 크레인에 약 10m 높이로 매달아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앞에서도 차량 10여대를 동원하고 확성기를 이용한 투쟁가요 등을 틀며 시위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제주시 해안동

한라산국립공원 생태복원사업 임시 야적장 현장에서 발생한 25t 유압 크레인 전도 사고의 조속한 사고수습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른 새벽시간부터 농성을 시작해 확성기로 투쟁가요가 담긴 노래를 틀자 112에 민원 신고가 이어졌다. 현재(20일 오후 3시 기준)까지 신광사거리 고공 농성과 제주도청 정문 앞 시위로 신고된 민원 건수만 42건에 이른다.

고공 농성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 토지주 B씨는 자신의 땅에서 허락도 없이 농성을 벌인다고 “재물손괴” 혐의로 A씨에 대한 진정서를 연동자치 지구대에 19일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많은 민원이 접수돼 업무방해 혐의 적용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2살 여아 추행 50대 실형

술에 취해 2살 여아를 추행하고, 행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1)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김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9시쯤 제주시 일도2동 동문시장 인근에서 2살 여아를 두 차례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 아동의 부모가 제지했음에도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가을 문턱 향파두리 비밀의 정원 가을 문턱에 다가서며 땃별의 기운이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20일 제주시 애월읍 향파두리내 비밀의 정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꽃밭에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만들고 있다.

SFTS 네번째 환자 발생 농작업·야외활동 요주의

제주에서 울들어 네번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했다. 집 주변 텃밭에서 일하다 진드기에 물려 SFTS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적잖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주에서는 한창 밭초가 이뤄질 시기여서 야외활동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는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Y씨가 19일 SFTS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Y씨는 집 앞 텃밭에서 매일 농작업을 해 왔는데 지난 17일부터 발열, 근육통, 설사, 구토 증상으로 관내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19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해 SFTS 검사를 받았고 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양성 판정을 받았다.

SFTS는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2주 이내 고열, 구토, 설사 등 소화기증상 등을 나타내는 진드기 매개감염병이다. 작년 제주에서는 15명의 환자가 발생해 3명이 사망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야외활동이나 농작업시엔 긴 팔 옷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발열이나 소화기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

제주보건소 “40대 남 항생제 치료 중”

제주보건소는 올해 제주에서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확인돼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환자 A(49·제주시)씨는 특별한 기저질환은 없었으나 술을 장기간 섭취했고 현재는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치료 중이며 환자의 위험요인 노

출력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 전국적으로 40~50명의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8~9월에 집중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 6월 서울 거주 50대 남성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 환자로 판정됐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주로 어패류 섭취 또는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에 의해 감염되고 만성 간 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지며 발열, 오한, 혈압저하, 복통, 설사, 괴사성 피부병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2018년 발생한 47명의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중 20명이 사망했다. 고대로기자

“비자림로 공사구간 천미천서 원양 확인”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3일 비자림로 공사 구간 내 천미천에서 천연기념물인 원양의 번식이 제주 최초로 확인됐다”며 “천연기념물 담당 부서인 문화재청은 천미천 원양 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주유기 조류학자에 의해 천미천에서 수컷 원양이 발견된 데 이어, 지난 13일 비자림로

시민모니터링단에 의해 청소년기에 이른 아기 원양 네마리, 14일에는 문화재청 조사단이 아주 어린 원양 두마리와 어미로 보이는 원양을 추가로 발견했다”며 “원양은 우리나라에서는 텃새화했다고 하지만 제주에서 원양 번식이 기록된 사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양 번식 확인으로 천미천이 야생동물들에게 중요한 서식지라는 사실이 다시금 입증됐다”며 “제주자치도는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중단하고 비자림로와 천미천에 대한 4개월 정밀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석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한국해운조합 제16대 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회장 고성원

한국해운조합 제16대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주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제주항발전협의회 회원사 일동



사진제공 임성복